

경기 어려운데 가격인하 압박까지 레미콘·시멘트업계 위기감 ‘폭증’

수도권 등 레미콘값 1~2%대 인하
국토부 배치플랜트 설치 완화 심화
시멘트 내수 445만t, 24.8% 감소
시멘트 가동률 65%, 8개 공장 중단
4월 중 2개 공장 추가 정지 예정

정부와 건설사의 가격 인하 압박으로 가뜰이나 경기 침체에 고전하는 레미콘·시멘트업계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건설사는 시멘트, 레미콘의 최종 소비자이자 사실상 ‘갑’이다. 레미콘·시멘트업계는 건설사들이 불경기에 분양가 인하는 커녕 분양원가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레미콘, 시멘트 가격만 압박하며 생색내고 있다는 불멘소리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와 레미콘 업체간 줄다리기에 가장 큰 시장인 수도권과 부산권 레미콘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공은 개별 레미콘 회사와 시멘트사로 넘어갔다.

수도권 레미콘 가격을 두고 건설사를 대표하는 대한건축자재지협의회(건자회)와 수도권 레미콘 업체를 대표하는 영우회가 4개월 가량 총 11차례 회의에서 줄다리를 한 끝에 올해 레미콘 단가를 루베(㎥)당 9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의 9만3700원보다 2.5% (2300원) 내린 가격이다. 당초 건자회는 8만8200원, 영우회는 9만6700원을 제시했다. 부산, 김해, 양산을 아우르는 부산권도 최근 레미콘값을 ㎥당 10만1300원에서 9만9400원으로 1.9% (1900원) 내렸다.

건설업계는 착공 물량 감소, 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인하’를, 레미콘업계는 전기요금, 인건비, 운반비 등 비용



레미콘·시멘트업계가 전방 산업인 주택건설경기 침체,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시멘트공장 전경.

증가로 ‘인상’을 각각 요구했다. 인하 가격은 소급해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문제는 힘의 논리에서 건설사에 전 레미콘 업체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은 운반비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가격 인하 요인이 전혀 없다. 게다가 레미콘 가동률은 1998년 IMF 직후에 30%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엔 17.4%까지 떨어질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올해는 1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압박 등에)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설상가상으로 레미콘업계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공사현장내 레미콘 생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 등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는 1000개가 넘는 중소레미콘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업조정 제도를 무색케하는 것으로 업계는 향후 대정부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레미콘과 가격 협상을 해야하는 시

멘트도 상황은 최악이다.

한국시멘트협회가 올해 1~2월 시멘트 내수를 집계한 결과 445만톤(t)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92만t)에 비해 24.8%나 감소했다. 1~2월 내수 판매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적다. 2023년 712만t과 비교해도 2년만에 무려 37.5%(267만t)가 줄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올해 시멘트내수를 4000만t으로 전망했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1991년(4420만t) 당시 처음으로 4000만t대에 진입한 이후 IMF 외환위기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4000만t 아래까지 후퇴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91년에는 당시 생산능력(4361만t)을 초과한 수치였지만 지금은 생산능력이 6200만t까지 증가했다. 기업경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가동률(70% 대 이상)보다 낮은 64.5%까지 하락하며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보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

김 이사장 “역할 확대 등 한 단계 성장”

기술보증기금이 창립 36주년을 맞아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 모색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3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전달했다.

1일 기보에 따르면 김종호 이사장(사진)은 이날 36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의 AI기반 기술평가 오픈플랫폼 K-TOP, 민관협력 중기전용 M&A 플랫폼 등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해 온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기보의 역할 확대에 대한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 속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수요자 중심의 혁신 금융 지원체계 구축 ▲청렴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플랫폼으로도 도약할 것도 주문했다.

기보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36년 후의 기보’라는 주제로 기관의 미래 비전을 함께 ‘그리는 사내 공모전’도 진행했다. 청년 예술가 작품 전시, 기부 캠페인, 헌혈증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함께 펼쳐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

기보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제공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한편, 기보는 설립 이후 지난 36년간 기술보증 502조원, 보증연계투자 5962억원, 기술이전 9800여건, 기술보호 1만5000여건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 주기 성장에 기여해왔다.

/김승호 기자

삼양, 화학그룹 중심으로 다변화 박차

스페셜티 소재 사업 강화나서

삼양그룹이 스페셜티 소재와 솔루션을 통해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화학그룹을 중심으로 사업 다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삼양그룹은 페트(PET) 재활용 소재 생산 계열사인 삼양에코테크를 통해 생산-유통-재활용으로 이어지는 페트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삼양에코테크는 삼양그룹의 페트 용기 및 음료 제조 계열사 삼양패키징의 100% 자회사로 지난 2022년 설립됐다. 페트병을 잘게 분쇄한 페트 플레이크와 추가 가공한 작은 알갱이 형태의 재활용 페트칩을 생산하고 있다.

삼양에코테크는 경기도 시흥시에 연간 4만 5000톤의 페트병을 물리적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갖추고 있다. 연간 생산규모는 페트 플레이크 3만 2000톤, 재활용 페트칩은 2만 2000톤에 달한다.

삼양에코테크는 최근 자체 생산한

페트 플레이크와 재활용 페트칩을 식품 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인증을 획득하며 시장 확대에 나섰다.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증받았는데 이어 최근에는 식약처의 인증을 획득하며 재생 원료를 식품 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모든 인증을 갖추게 됐다.

지난 1976년 국내 최초로 이온교환수지 생산을 시작한 삼양사는 바이오 의약품수지 국산화에 나섰다. 삼양사는 최근 아가로스 수지 전문기업 퓨리오젠과 ‘바이오의약품 정제용 아가로스수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4조 7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6%씩 고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원료와 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삼양사는 오랜 기간 쌓아온 이온교환수지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수지 시장에 진출하고, 새로운 의약품수지 연구개발에도 나서 소재 국산화에도 앞장선다는 전략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위니아, 회생 기한 앞두고 ‘생존 기로’

서울PE 재계약 실패 불확실성 증대
광주·국회 등 회생 추가 시간 요청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중견가전기업 위니아가 회생 절차 최종 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서울프라이빗에쿼티(서울PE)와의 재계약이 결렬되면서 회생 전망이 더 불투명해졌다.

위니아는 애초 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PE와의 인수·합병(M&A)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계획안 제출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위니아는 지난 1일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위니아관리인·노조, 채권단대표와 함께 법원을 방문해 회생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위니아 관계자는 “채권부가 전반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면담 이후 전개될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PE는 위니아의 기업가치를 약 870억 원으로 평가하고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스토킹호

스는 인수 대상 기업이 특정 인수자(스토킹호스입찰자)와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거쳐 다른 입찰자가 없을 때 스토킹호스 입찰자가 최종 인수하는 방식이다. 서울PE는 채권 중 미지급 임금과 협력업체 채권의 8%를 현금으로, 나머지 92%를 위니아 주식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서울PE는 1차 계약금 43억 5000만 원을 냈지만, 일부 채권단의 반대로 2차 계약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13일 조건부 투자계약이 해제됐다. 이후 변제율 조정 등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투자자 설득 등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재계약도 무산됐다.

오는 23일까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지 못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위니아는 광주시에 본사를 둔 지역 대표 기업으로, 약 350명의 직원과 150여 개 협력업체를 통해 약 2,500명의 종사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지역 주력산업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파산이 현실화될 경

우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위니아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채납액은 약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위니아 노조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박영우 전 대우위니아그룹 회장을 추가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공장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 약 114억 원을 채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노조 측은 “피해 노동자들은 대지급금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바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 국회도 위니아의 회생을 위한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흥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한이 도래되어 파산이나 청산에 이르게 될 경우 그 피해는 임금 채납 노동자와 그 가족 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와 고객에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혜민 기자 hyem@

LS전선, HVDC 품질 시험 인프라 확대

전기연구원과 시험장 장기 사용 협약

LS전선이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에서 글로벌 누적 수주 3조원을 돌파하며 급증하는 품질 인증 수요에 대응해 시험 인프라 확보에 나섰다.

LS전선은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경남 창원 HVDC 시험장의 장기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LS전선은 오는 2027년 3월까지 KERI 시험장에서 525kV HVDC 케이블 시스템의 품질 및 성능 시

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KERI는 전력기기 품질을 검증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세계단락시험협의체(STL) 정회원 자격을 통해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HVDC는 대용량 전력을 장거리로 효율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 기술로 해상풍력 및 국가간 전력망 연계 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HVDC 케이블은 고객 요구에 따라 설계가 달라지는 주문형 제품으로 프로젝트별 품질 및 성능 시험이 필수적이다.

/차현정 기자